논어 5편 공야장 15장 · 원문·풀이

子貢問曰：「孔文子，何以謂之文也？」子曰：「敏而好學，不恥下問，是以謂之文也。」

독음 · 자공문왈 공문자 하이위지문야 자왈 민이호학 불치하문 시이위지문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문자는 영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貢 바칠 공 공 / 問 물을 문 문 / 曰 가로 왈

孔 구멍 공 공 / 文 무늬 문 문 / 何 어찌 하 하 / 以 써 이 이

謂 고할 위 위 / 之 갈 지 / 也 어조사 야 / 敏 민첩할 민 민

而 말이을 이 / 好 좋을 호 / 學 배울 학 / 不 아닐 불

恥 부끄럼 치 치 / 下 아래 하 하 / 是 이 시 시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